

“글로벌 경제위기, 자산증식 기회로... 채권·환율이 도움”

기조강연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서강대 교수)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시기에 걸맞는 투자처 강조
달러 하락, 엔·위안화 상승 전망
“금융민주주의” 시대가 찾아오길”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현재 세계 경제는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히려 투자에는 좋은 기회로 활용 할 수 있어 환율, 채권투자 등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익 소장은 지난 20일 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글로벌 환율 전망 ▲한국 경제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다.

김 소장은 “짜이클 변동을 분석해야 자산 분배를 잘 할 수 있다”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할 수밖에 없어, 시기에 맞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2.8%)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 충격을 줬지만, 다음해인 2021년에는 6% 넘게 성장했다”며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면서 가계부채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소비는 위축됐지

는 역사상 최저까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에 거품이 끼었지만 현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부채를 줄이고 있다”며 “미국 국채 금리의 적정 수준은 4%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가 4%로 거품이 붕괴되면서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채권 투자를 많이 하라고 강연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권유하고 있다”며 “1년 전에 비해 채권 가격은 10% 넘게 올라지만 1년 만기 예금 이자는 불과 3~4%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투자의 경우 지난해 저점을 지나 올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금리인하 시점에서 채권을 투자하는 것이 자산증식에서 이득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올해 달러 가격이 하락하고, 엔화, 위안화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들어 달러 강제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연말을 기점으로 내년 말까지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엔화, 위안화, 원화 등 모든 통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오는 2028년까지 세계에서 미국 비중 축소를 시사했다. 달러 가치가 중기적으로 하락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금리 하락 시점에 돌입했기 때문에 경제 회복과 관련한 투자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금융민주주의’ 시대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만 금 가격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상황에도 투자처는 있다는 말이다.

김 소장은 전체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3가지로 경제성장률, 물가성장률, 자금유동성을 꼽을 수 있는데 현재는 경제·물가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 예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에 돈이 남아돌고 있다”며 “기업의 자금 수요 감소로 인해 은행들은 채권을 구매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국가들은 금리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반대로 금리인하 시점이 떨어지고,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수록 채권 투자 매력은 떨어진다.

김 소장은 “코로나 시기 미국의 금리

포럼 이모저모

100세 시대 준비 ‘한마음 한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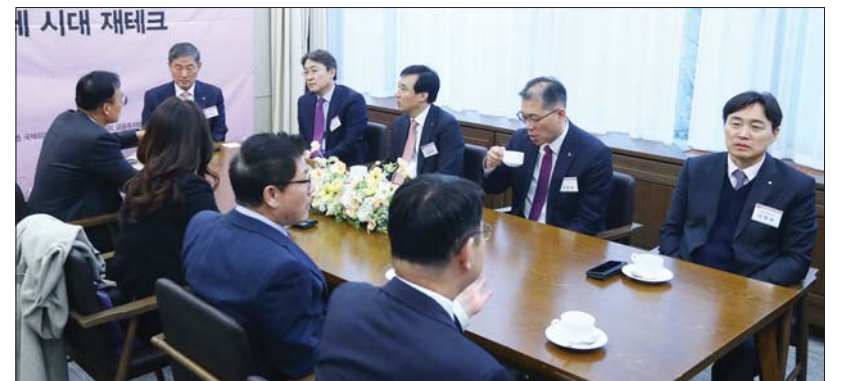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현장.

-‘생존 재테크’ 관심집중

지난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등 주요 금융기관장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포럼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수축경제 시대,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생존 재테크’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가 ‘생존 재테크’인 만큼 50~60대 중년층과 고령층의 참석자가 많았다.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대화하고 있다.

-VIP 티타임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리딩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김 소장은 “유튜브에서 김영익의 경제스쿨이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를 사칭해 다른 채널에서 중독 추천과 수수료 유도를 하고 있다”며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그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으로, 경제스쿨 이외에 다른 채널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공인회계사 증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 이 협회장은 “제가 공인회계사회에 있었을 때 공인회계사 합격 정원이 1100명에서 1250명으로 늘어났다”며 “회계업계에서 저항이 강했고 시위도 발생해 내부적으로 설득에 나섰다”고. 그는 “처음에 회계사 1000명이 될 때도 반대가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300명이었다”며 “작년에 증원하지 않았으면 올해 정원이 더 늘어나서 범람이 심해졌을 것”이라고.



참석자들이 테블릿 PC, 스마트폰으로 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뜨거운 현장 분위기

강연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수첩에 적는 참가자들과 노트북과 테블릿 PC에 강연 내용을 적는 참석자들이 많았다. 특히 80세 고령층 참석자의 테블릿 PC 사용은 주위를 놀라게 했다.

80세 참가자는 “포럼 현장을 다니면서 수첩에 적는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단순 키워드만으로는 기억하기가 힘들어 테블릿 PC를 구매했다”며 “녹음과 동시에 한글파일로 키워드를 입력하면서 강연에 더욱 집중 할 수 있게 됐다”고.

/이승용 기자

“아파트 투자 시 최고의 가치는 ‘환금성’”

강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MZ세대 욕망 파악’ 강조
“재건축보다 신축 눈여겨봐야”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규제 강화,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먹구름이 짙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아파트의 경우 구조적 불황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투자 전략에도 이목이 쏠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MZ세대의 욕망 파악'이라고 강조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세대별로 집에 대한 서로 다른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

팔 수 있어야 한다. 대단지 등 택시운전자가 아는데 아파트에 초점을 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재건축보다는 신축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인구쇼크를 감안한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지방은 10년 뒤에 인구쇼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인 서울은 가구수가 204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쇼크는 20년 뒤에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원룸주택, 상가 등을 구매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10년 전 버전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상가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오피스, 스튜디오 등을 임대해 월세 수익화가 가능한 곳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줄이고, 금융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과 주식을 5대 5로 가져가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

야 한다”면서 “20대 남성들은 ‘한강뷰’ 아파트를 원하고, 일본 MZ세대의 주거 로망은 ‘타워 맨션’(20층 이상 고층 아파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사람의 공간 욕망을 파악해야 부동산 투자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MZ세대, 특히 35세 여성 시각에서 부동산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투자 시 환금성이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이 비싸지면서 거래가 줄고 있다. 2006~2023년 전국 아파트 거래회전율은 6.7%에 그쳤다”면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할 때